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예수님은 이방 백부장의 믿음에 감탄하고 배우라고 우리들을 초대 하십니다 [누가복음 7:1-10]

설교자: 마티아스 샷트 (Matthias Schat)

1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2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3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4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5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6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7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8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9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히 여겨 돌이키사 좃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10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성경은 읽다가 예수님께서 어떤 것에 경이로워하시거나 놀라워하시는 내용을 발견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본문 9절엔 로마 사령관 백부장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나와있습니다. *9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히 여겨 돌이키사 좃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7:9). 예수님께서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주목하시고 믿는 것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 모두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방 백부장의 믿음에 감탄하고 배우라고 우리들을 초대 하십니다.

1, 우리의 무가치함

예수님께서서는 가버나움이란 도시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자신이 지극히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종을 낫게 하려고 자신을 대신해 유대인 장로 몇 명을 보내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 백부장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주목하십시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도움 받을 가치 있는 사람이자 좋은 사람이라 말합니다. *4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5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누가복음 7:4-5). 우리 또한 이 유대인 장로들과 같이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며 오늘 설교본문에 나온 백부장의 모습 또한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사람을 보내 예수님에게 알립니다. *6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누가복음 7:6).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의 고백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는 무가치한 죄인들입니다.

2, 그리스도의 권위

백부장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위와 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충분히 자신의 종을 낫게 하실 수 있으며 말씀만으로도 그의 종은 낫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7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누가복음 7:7). 그는 자신이 권위와 힘에 순종하는 사람임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모시고 위대하고 강력하신 분으로 대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예수님의 신성한 권위와 능력을 확신하고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확신과 신뢰를 바탕으로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자신의 종이 나올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힘과 권위를 우리의 마음속에 반복해서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에 대해 너무 쉽게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를 분투하는 죄가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빼앗아 갈 만큼 강력하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우리의 시련과 어둠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권세와 힘을 가지신 분이란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은 말씀을 통해 알게 되며 기도와 우리 마음 속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이것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믿음과 신뢰는 우리에게 큰 평안이 됩니다.

3, 하나님의 은혜

백부장은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을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또한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 않은 그가 그리스도께 도움을 요청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설교본문 10절에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하인을 고치는 장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올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위대한 표시입니다. 그분의 구원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게 될 때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들 그리고 모든 이방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의 힘과 권세로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식을 지속적으로 되새기며 위로받고 용기를 얻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진 이유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